

작품 내용

제 목	한 번의 클릭, 사라진 이름
내 용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교과서 속 위인의 이름을 외우고, 운동선수 이름의 이름을 응원하며,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검색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터넷에서는 이름이 쉽게 사라진다. 멋진 사진 한 장을 보아도 누가 찍었는지 모르고, 감동적인 글을 읽어도 누가 썼는지 잊는다. 영상은 수없이 공유되지만 창작자의 이름은 어느새 잘려 나간다. 결과물은 남아 있는데, 정작 그것을 만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저작권이란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이름을 끝까지 지켜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다.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했다. 마우스를 올려 저장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너무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검색만 하면 나오는 자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니 그 사진은 누군가가 직접 찍은 것이었고, 그 글은 누군가가 오랜 시간 고민하며 완성한 결과였다. 내가 단 몇 초 만에 저장하려는 그 작품 뒤에는 셀 수 없는 시간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완성된 모습만 본다. 음악은 재생 버튼 하나면 들을 수 있고, 웹툰은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영상도 몇 분이면 감상할 수 있다.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쉬웠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창작은 결코 쉽지 않다. 작가는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수십 번 문장을 고치고, 사진작가는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 작곡가는 몇 초의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 수백 번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 우리가 소비하는 몇 분의 콘텐츠는 누군가의 며칠, 몇 달, 때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을 품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창작자가 되는 순간이 있다. 수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자료를 찾고, 내용을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는다. 발표를 위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수정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완성한 결과물을 다른 친구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한다면 어떨까. 분명 억울하고 속상할 것이다. '내가 한 노력인데 왜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이다. 저작권은 바로 그 마음을 지켜 주기 위해 존재한다. 법보다 먼저 사람의 양심을 보호하는 약속이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복사는 몇 초면 끝나고, 공유는 버튼 하나면 가능하다. 하지만 복사되는 것은 파일이지 노력은 아니다. 저장되는 것은 이미지이지 창의성은 아니다. 우리는 너무 편리한 환경 속에서 '쉽게 얻은 것'과 '쉽게 만들어진 것'을 혼동하고 있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쉽게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도 만든다. 처음에는 신기

하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 인공지능은 무엇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낼까. 수많은 사람들의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만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도 깨달았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만 창작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은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새로운 영화를 찍으며, 새로운 책을 쓴다. 만약 아무나 마음대로 가져가도 괜찮은 세상이라면 누가 긴 시간을 들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고 할까. 저작권은 창작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창작을 이어 주는 다리이다.

우리는 흔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사진 한 장쯤이야, 음악 한 곡쯤이야, 문장 몇 줄쯤이야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그런 작은 행동이 반복될수록 창작자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진다. 누군가의 노력이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리고, 결국 창작의 가치는 조금씩 사라진다. 거대한 저작권 침해도 대부분은 이런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저작권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출처를 남기고, 허락을 구하고, 정식 서비스를 이용하며, 무료 이용이 가능한 자료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면 충분하다. 몇 분 더 걸리는 일이지만 그 몇 분은 누군가의 몇 년을 존중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

나는 앞으로도 수많은 창작물을 보며 살아갈 것이다.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진을 감상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 보여 줄 글을 쓰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상도, 유명세도 아니다. 단 하나, 내 노력에 내 이름이 함께 남는 것이다.

아마 모든 창작자가 바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은 종이에 적힌 법 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시간을 인정하는 일이며, 땀을 존중하는 일이고, 창의성을 응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품 뒤에 숨어 있는 이름을 끝까지 지켜 주는 가장 따뜻한 약속이다.

세상은 앞으로도 더 빠르게 변할 것이다. 기술은 발전하고 콘텐츠는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누군가가 정성을 다해 만든 것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이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작품만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작을 이어 가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내가 오늘 남긴 출처 하나, 내가 오늘 지킨 저작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창작할 용기를 준다.

창작은 사람을 움직이고, 저작권은 그 창작을 지킨다. 결국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작품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